

세대별 투표율·숨은 표가 승부 가른다

더민주, 20~30대 지지자 많아 "숨은 표심 반영될 것"
국민의당, 50대 이상서 강한 지지 "투표율 높아 승리"

㉠ 선택 4·13 D-8

4·13 총선을 9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접전 선거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대별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지표상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표'의 향배도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20~30대는 더민주 후보에게, 50~60대 이상은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강한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다. 40대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어느 한 편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접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20~30대와 50~60대의 투표율 차이가 크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광주의 19세~39세 이하 투표율은 45.4%인 반면, 50세 이상의 투표율은 62.7%로 17.3%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권자는 19세~39세 이하가 46만 여명, 50세 이상이 41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의 19세~39세 이하 투표율은 40.2%, 50세 이상은 68.3%로 무려 28.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세~39세 이하 유권자는 55만6000여명, 50세 이상은 84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남 선거구는 시와 군의 연령별 유권자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세대별 투표율 영향의 편차가 지역구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9대 총선 광주·전남

지역 연령별 투표율을 바탕으로, 여론조사 상에 나타난 접전 지역구에서 대부분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자체 조사 및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투표율이 높은 50대 이상에서 국민의당 지지가 20~30대의 더민주 지지세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접전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더민주의 숨은 표에 주목하고 있다. 숨은 표란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말그대로 숨어있는 표심을 의미한다. 숨은 표는 각종 선거에서 5% 내외를 차지하며 특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 반문(반 문재인) 정서가 강하게 형성, 더민주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위축되면서 국민의당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결국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더민주 지지 성향의 숨은 표가 나타나면서 접전 지역구에서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패배 등 야권 분열로 인한 정권 창출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숨은 표의 결집이 강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선거 당일 광주·전남 민심의 전락적 선택과 함께 숨은 표심이 반영되면서 더민주 후보들의 승리가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세대별 투표율과 숨은 표의 향배가 지역구 특성 및 인물론 등과 맞물려 광주, 전남 지역구 곳곳에서 극적인 승부가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투표용지 인쇄 4·13 총선 D-9일인 4일 광주시 서구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 무더기 퇴직 시작됐다

5년 간 광주시 406·전남도 349·목포시 170명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1956년생부터 1960년생 공무원, 직장인 등이 향후 5년간 무더기로 직장을 떠날 전망이다. 아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 기회 제공, 사회 기여 방안 마련 등 지역사회 노력의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의 퇴직으로, 신규채용도 급증하게 돼 공직에 입문하는 '공시족'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56~1960년생 간부급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청 내 공무원(1956~1960년생) 406명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퇴직한다. 정원 1888명의 4.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전남도청에서도 349명이 같은 기간 퇴직해 전체 정원(2226명)의 15.6%가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다. 목포시의 경우 목포시 소속 전체 공무원 1142명 중 15%에 이르는 170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올해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1956년)은 14명 수준이지만,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35명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퇴직 대상자는 1957년생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58년생 35명, 59년생은 36명, 60년생은 37명 등이다.

간부 공직자인 국장급(서기관)도 56년생 1명, 57년생 2명, 58년생 1명, 59년생 3명, 60년생 2명 등 모두 9명이 정년 대열에 포함되면서 적체된 인사 숨통도 트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전남도 역시 올해 42명(1956년생)을 시작으로 내년 69명, 2018년 81명, 2019년 71명, 2020년 86명이 청사 정문을 나서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대규모 퇴

직은 취업난 속 신규 공무원 채용 확대로 이어지고, 하위급 공무원의 승진이 2~3년 정도 앞당겨져 인사적체가 해소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경험 아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 기회 제공, 사회 기여 방안 마련 등 지역사회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의 퇴직으로, 신규채용도 급증하게 돼 공직에 입문하는 '공시족'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연륜이 있는 선배들은 악성민원 등에 잘 대처하고, 중앙정부와의 풍부한 인맥 등 각종 행정 노하우도 많이 갖추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선배들이 퇴직을 할 경우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행정공백 우려·신규채용 기대

전남도가 최근 전남지역 60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알선과 취업교육, 각종 능동기부,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시니어세일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베이비붐 세대 통계 개발(여수시), 은퇴자 재취업 도우미 제도(장흥군), 은퇴자 휴양마을 55곳 조성(전남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북성 목포시의회의원은 "선배 공무원의 노하우를 신입이나 낮은 연차 직원에게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노하우 전수와 병행해 이들이 은퇴 후 봉사활동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의류 관리·건조기 등 '광주형 공동브랜드' 제품 연내 생산

삼성전자 생산라인 이전 대책

스마트폰으로 작동하는 다기능 의류 관리·건조기, 친환경 고효율 싱크대 살균기, 주방용 스마트 환기시스템.

광주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일부 생산라인 이전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광주형 공동브랜드 제품이 연내 생산된

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광주형 상생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 주관기업과 함께 광주형 공동브랜드와 업체의 개별 브랜드를 혼합해 사용한 완제품을 연내 생산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지역 가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간 협업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이

다. ㈜인아, ㈜현대이엔티, ㈜현성오토텍, ㈜디케이산업, ㈜광진산업, ㈜씨엔티가 참여한다.

시는 이달 중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공동 브랜드명과 디자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동 브랜드가 '빛고을'이라면 빛고을·인아, 빛고을·현대이엔티 등 광주를 상징하는 브랜드와 개별 기업 브랜드를 함

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제품 생산 시기에 맞춰 공동 판매 전시장 조성을 검토하고 홍보팀 임점 지원, 지역 출신 방송인과 홍보모델 마케팅 등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프로젝트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완제품 품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에서 안정적인 중소기업 주도형으로의 경제구조를 변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불황...2차 숨은 집에서 마신다 ▶7면

송수권 시인 '천국의 山門' 넘다 ▶17면

KIA 오늘 홈 개막전
토종 에이스
윤석민 뜬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2,996cc, 1,809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8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38g/km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